

# 2019 국별 진출전략

## 베네수엘라



# CONTENTS

## 2019 베네수엘라 진출전략

<b>I. 시장 전망 및 주요 이슈</b>	<b>3</b>
1. 개요	3
가. 시장 전망	3
나. 주요 경제지표	4
2. 2019년 주요 이슈 및 전망	4
가. 마두로 대통령 집권 2기 시작	4
나. 경제회복·성장·번영 프로그램 시행 결과에 주목	5
다. 석유산업의 부활을 꿈꾸는 베네수엘라	6
라. 외화획득을 위한 수출 진흥정책 추진	7
<b>II. 비즈니스 환경 분석</b>	<b>8</b>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8
2. 시장분석	12
가. 시장 특성 및 전략적 가치	12
나. 수출입	13
다. 투자진출	16
라. 공공조달·프로젝트	17
3. 한국과의 경제교류 및 주요 경험의제	18
가. 교역	18
나. 투자	19
다. 주요 경제협력 의제	20
<b>III. 진출전략</b>	<b>21</b>
1. SWOT 분석 및 전략도출	21
2.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22
3. 한-베네수엘라 경제협력을 통한 진출전략	26
첨부 1. 수출유망 품목	29
첨부 2. 수출유망 서비스	31
첨부 3. 2019년 KOTRA 주요 사업 (잠정)	32
첨부 4. 2019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전시회 캘린더	33

# I 시장 전망 및 주요 이슈

## 1. 개요

### 가. 시장전망

#### □ 정권 교체 실패 및 원유생산량 감소로 인한 경기침체로 마이너스 성장 지속 예상

- 2018년 5월 실시한 조기대선에서 현 마두로 대통령이 무난히 당선되며 집권 2기를 대비 2018년 8월 일련의 경제회복 및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경제정책혁신안을 발표
  - 경제정책개혁 도입 이후, 하이퍼 인플레이션 가속화, 베네수엘라 국민의 엑소더스가 지속되며 내수시장이 침체되고 있음
- 2019년 유가상승이 예상되나 생산량 감소로 인해 큰 혜택을 보지 못한 채 현상유지 전망
  - 다만, 베네수엘라 정부는 외화 획득을 위해 수출진흥을 장려하고 있어 국내 생산체인 구축을 위한 원부자재 수입 수요, 국내생산 중단품목에 대한 수입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은 주목해야 함

### 나. 주요 경제지표

주요 지표	단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인구	백만 명	30.3	30.7	31.2	31.6	32.0	32.4	32.8
명목GDP	십억 달러	370.91	279.99	477.59	65.77	153.94	283.32	437.34
1인당 명목GDP	달러	12,234	9,109	15,329	2,083	4,814	8,749	13,342
실질성장률	%	1.4	-3.9	-5.8	-18.5	-9.1	-17.1	-15.4
실업률	%	7.5	7.0	6.8	12.1	16.5	20.0	24.5
소비자물가상승률	%	38.5	57.3	111.6	242.8	1,040	18,874	255
재정수지(GDP대비)	%	-11.7	-14.0	-15.1	-15.7	-11.2	-10.5	-9.0
총수출	백만 달러	2,100	2,734	2,807	1,331	1,278	N/A	N/A
(對韓 수출)	"	46.5	1.3	4.4	1.1	12.6	N/A	N/A
총수입	"	45,751	38,635	30,357	24,011	6,721	N/A	N/A
(對韓 수입)	"	296	210	280	179	63	N/A	N/A
무역수지	백만 달러	-43,650	-35,902	-27,550	-22,680	-5,443	N/A	N/A
경상수지	"	4,298	5,249	-16,565	-4,615	3,773	12,561	2,435
환율(연평균)	현지국/US\$	6.1	10.8	12.6	478	2,069	105,750	199,076
해외직접투자	억 달러	7.52	23.73	3.99	10.41	22.34	N/A	N/A
외국인직접투자	억 달러	26.8	-10.28	7.69	10.68	-0.68	N/A	N/A

주: 2018년은 추정치, 2019년은 전망치

자료원: IHS Markit, Global Trade Atlas(수출입, 무역수지), UNCTAD(투자)

## 2. 2019년 주요 이슈 및 전망

- 2019년 1월 마두로 대통령의 집권 2기가 시작되는 가운데 2018년 5월 조기대선 개최 후, 경제회복을 위해 추진 중인 경제회복·성장·번영 프로그램의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 이를 통해 베네수엘라는 석유증산, 수출진흥 등을 꾀하며 경제회복을 도모하고자 함

### 가. 마두로 대통령 집권 2기 시작

#### □ 2018년 5월 조기대선 개최로 마두로 대통령 재집권 확정

- 2018년 5월 20일 개최된 베네수엘라 대선 결과, 니콜라스 마두로 현 대통령이 67.7%의 압도적 지지율을 얻어 재선에 성공하였으며 2019년 1월부터 6년 기간의 집권 2기 시작
  - 2017년 4~8월 개최된 반정부 시위로 수백여 명이 사망했음에도 정부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자 국민들 사이에 변화에 대한 응집력이 약해짐
  - 또한 야당은 조기 대선을 보이콧하면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기권 캠페인을 벌였으나 헨리 팔콘 및 하비에르 베르투치가 대선에 출마하며 분열을 조장
- 마두로 대통령의 부동 지지층은 약 700만 명인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582만여 표를 득표했음을 감안하면, 결국 야당 지지자들의 낮은 선거 참여가 마두로의 쉬운 승리를 이끌게 되었다고 볼 수 있음
  - 마두로의 지지층은 베네수엘라가 당면한 문제를 인정하지만 집권층의 잘못이 아닌 미국과 야당이 시작한 경제전쟁(Guerra economica) 때문이라고 믿으며 마두로와 볼리바르 혁명을 무조건적으로 지지
- 이번 대선에서는 유력한 야당 후보의 대선 참여를 원천봉쇄하고 투표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며 미국이 對베네수엘라 제재를 확대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이번 선거 결과를 비난하고 있어 2기 집권이 시작되는 2019년 1월부터 정권의 정당성에 대한 이슈가 제기될 수 있음
- 베네수엘라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각종 인프라가 무너지고 있는 가운데, 마두로 대통령이 향후 6년간의 임기를 무사히 마치기 위해 도입하고 있는 각종 사회경제 개혁정책이 과연 성공을 거둘지 귀추가 주목됨

## 나. 경제회복·성장·변영 프로그램 시행 결과에 주목

### □ 경제회복·성장·변영 프로그램 시행 주요 골자

- 베네수엘라의 하이퍼 인플레이션, 석유산업 생산성 하락으로 인한 외화부족 등 각종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베네수엘라 정부는 화폐개혁, 최저임금·유가·부가세 인상 등을 골자로 하는 경제회복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2018년 8월 20일부터 시행하였으며 각종 경제정책을 지속적으로 발표 중임
- 화폐 액면가를 100,000:1로 절하하며 기존의 볼리바르 푸에르테(Bolivar Fuerte, BsF)를 대체할 볼리바르 소베라노(Bolivar Soberano, BsS) 신권 도입. 볼리바르 소베라노 환율은 정부발행 암호화 화폐인 페트로(Petro)에 연동, 달러당 BsS 60으로 책정
  - \* 화폐개혁 이전 비공식 환율인 달러당 BsF 600만을 고려한 수치로 분석
- 한편, 최저임금은 페트로에 연동하여 가치 하락을 방지할 예정으로 0.5페트로인 BsS 1,800으로 발표하였는데 이는 기존에 비해 30배에 달하는 인상률임
- 베네수엘라 경제위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외환통제와 관련, 경매를 통한 기존의 공식 환전 시스템인 DICOM(상업환율)을 유지하되 국영은행뿐 아니라 민간은행도 DICOM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미국 경제제재로 인해 2018년 11월부터는 유로, 위안화로만 공식 거래 예정임을 밝힘
-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무분별한 화폐발행을 자제하고 실제 국내생산에 기반한 화폐발행을 추진하며, 부가세율을 4%p 인상하여 16%로 발표함. 또한 휘발유 가격을 국제 시세로 인상하여 기존의 무차별적 보조금을 폐지할 예정

### □ 경제회복·성장·변영 프로그램 평가

- 베네수엘라 정부의 일련의 정책 발표는 큰 방향에서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정부에서 불법으로 간주했던 비공식 환율을 인정하며, 시장질서를 존중하겠다고 발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정책 발표 초기에는 정부 환율을 당시의 비공식 환율 수준으로 조정하고 DICOM 경매를 주 5회 진행하며 변동 환율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나 점점 비공식 환율과 격차가 벌어지고 있음
  - \* 달러당 볼리바르 2018년 8월 21일 (공식)60.00/(비공식)65.18, 2018년 10월 12일 62.78/115.29(Dolartoday 기준)
- 한편 화폐 액면가 절하, 최저임금 및 부가세 인상, 가격인상에 대한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화폐개혁 이후 물가상승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음

- 과거에는 물가상승과 환율상승이 동시에 이루어져 달러화 기준으로는 물가상승분이 크지 않았으나 화폐 개혁 이후 달러화 기준으로도 급격한 가격인상이 진행 중임
- 마두로 지지층은 최저임금 인상을 환영하는 분위기였으나 빠른 물가 상승으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상쇄되어 버림
- 콜롬비아와의 국경 지역을 중심으로 휘발유 가격인상이 시작되었으며 전국적으로 가격이 인상 되는 11월 이후에는 물가인상 체감 폭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
  - 새로운 휘발유 가격은 공식적으로 발표된 바 없으나 국제 시세에 맞출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 베네수엘라는 정유시설의 유지·보수 미비로 외국에서 휘발유를 수입하며, 정부 보조금도 지원하고 있어 정부의 재정부담이 상당함
  - \* 2018년 10월 12일 기준, 카라카스 시내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0.00001볼리바르 소비라노이며 비공식 환율은 달러당 115.29볼리바르임

## 다. 석유산업의 부활을 꿈꾸는 베네수엘라

### □ 신규 투자 및 유지·보수 미비로 인한 생산량 급감

- 베네수엘라는 전 세계 원유 매장량 1위 국가로 확인매장량은 3,028억 배럴(OPEC 발표 기준)에 달함. 막대한 원유를 바탕으로 석유산업이 국가 재정의 90% 이상을 차지하며 경제를 이끌어가는 구조임
  - 베네수엘라 내 원유 생산 및 판매는 국영석유회사인 PDVSA에서 독점하고 있으며 외국기업들은 PDVSA와 합작법인(6:4 비율)을 설립하여 활동함
- 베네수엘라 원유 생산은 1997년 일일생산량 300만 배럴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지속 감소 추세로 최근에는 감소세가 더욱 빨라져 2018년 3/4분기에는 일산 145만 배럴에 그침. 주요 원인으로서는 부실경영, 유가하락으로 인한 수입 감소, 재정적자로 인한 신규 투자 중단, 유지·보수 미비 등을 꼽을 수 있음
  - \* 345만bpd(1997) → 237만bpd(2016) → 203만bpd(2017) → 145만bpd(2018. 3Q)
- 미국의 이란 제재 등으로 유가 추가인상이 전망되지만 베네수엘라의 경우, 생산량 감소로 유가 인상으로 인한 이익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 \* 베네수엘라 Merey 배럴당 98.71달러(2014. 6) → 20.80달러(2016. 2) → 70.30달러(2018. 7)

### □ 미국 경제제재로 중국의 베네수엘라 석유산업 영향력 증대

- 2017년 7월 미국은 제헌의회 설립을 비민주적인 행동으로 규정하고 경제제재를 가함. 마두로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인사가 제재 명단에 올랐으며, PDVSA와 정부의 신규 채권 및 자산의

미국 내 매매가 금지됨

- 베네수엘라 주요 외화 획득원인 PDVSA의 미국 시장 내 파이낸싱이 어려워지면서 시설물 유지·보수 및 신규 투자가 어려워짐
- 2017년 제헌의회 설립, 2018년 부정선거 등 일련의 정치적 이슈로 중남미, 미국, 유럽과의 관계가 악화됨에 따라 중국, 러시아 등 정치노선이 비슷한 국가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특히 중국은 지난 10년간 베네수엘라에 약 600억 달러를 투자했으며, 베네수엘라는 이 투자금의 대부분을 원유로 상환하고 있음
  - 2018년 9월 마두로 대통령은 중국을 방문, 추가로 50억 달러를 유치했으며 마두로 대통령은 이를 통해 원유 생산을 증대해 중국으로의 석유 수출을 두 배로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함

## 라. 외화획득을 위한 수출 진흥정책 추진

### □ 새로운 외화획득원, 비석유 부문 수출 촉진정책 도입

- 베네수엘라의 원유 생산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베네수엘라 정부는 비석유·광물 분야의 수출 진흥정책을 추진 중임. 2018년 상반기 기준, 농식품 및 농업 분야를 중심으로 전년 대비 30% 이상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
- 또한 베네수엘라 정부는 여타 중남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금과 공공요금을 기반으로 하는 제조업 활성화 정책을 발표함
  - 재무부는 제조업 활성화를 위해 은행의 대출금 중 30%는 제조업에, 그중 80%는 전략분야인 식품, 유리, 섬유, 자동차, 화학, 제지 분야에 할당하도록 함
  - 2018년 8월 연방관보 및 정부시행령에서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현지에서 조달되지 않는 제품 수입에 대한 절차 간소화를 도입할 예정임을 밝힘. 이에 수입관세 면제, 국내 미생산 확인서 제출 면제 등의 정책을 시행할 예정
  - 각 주정부는 해당 주에서의 산업생산 증대 계획을 제출함



## II 비즈니스 환경 분석

###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 2019년에도 마두로 대통령의 집권이 계속되며 통제를 유지하되, 외환 및 수입에 대한 통제는 완화하는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 경제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시장은 일부 주요 기업 위주로 재편되는 모습이며 이들을 중심으로 산업 생산 유지를 위한 각종 수입 수요가 꾸준히 발생

#### 가. 정치 환경

##### □ 마두로 대통령 집권체제 지속 전망

- 야당은 2017년까지만 해도 통합된 모습을 보였으나 제헌의회 반대 시위, 정부의 야당 인사 탄압, 주요 인사 망명, 대선기간 중 야당의 분열 행보 등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었고 마두로 대통령의 대선 승리로 분위기 전환의 모멘텀을 상실
  - 국민들도 현 정권을 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대신할 뚜렷한 대안이 없음을 인식하고 있음
- 마두로 대통령은 대선 승리 이후 2018년 6월 개각을 단행하며 제헌의회 의장인 델시 로드리게스를 수석부통령으로 임명하고 디오스다도 카베요를 제헌의회 의장으로 임명함. 수석부통령 타렉 엘 아이사미는 경제부통령직을 맡음
  - 현재 정권하에서는 군 출신의 카베요 의장을 비롯, 마두로 대통령의 측근, 군출신 인사들이 전문성과는 관계없이 정부 주요 요직을 점하고 있음
    - \* 주요 부처 및 공공기관의 주요 인사들은 대부분 군 출신이 장악하고 있음
- 2018년 8월 마두로 대통령을 겨냥한 드론 공격 이후, 정부 반대 인사에 대한 탄압이 계속되고 있음. 한편, 마두로 대통령은 UN 총회 연설에서 드론 공격의 배후를 밝히기 위한 조사단을 파견할 것을 요청하기도 함
  - 2018년 10월 야당 소속 인사인 페르난도 알반은 동일한 UN 총회에서 베네수엘라의 인권침해 상황을 비판함. 베네수엘라 귀국과 동시에 드론 공격에 가담한 혐의로 볼리바르 국가정보원

(SEBIN)에 연행되었고 정부는 사흘 뒤 알반이 투신자살로 숨졌다고 발표했으나 야당은 타살의혹을 제기

## 나. 경제 환경

### □ 경제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쟁력을 갖춘 기업 중심으로 시장 재편

- 베네수엘라 정부의 각종 경제회복 정책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경제회복 유인책 부족으로 2019년에도 마이너스 성장(-15.4%)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이는 2014년 이래 연속 6년째 지속되는 마이너스 성장임
  - 2019년 정부 예산안도 친정부 성향의 제헌국회, 대법원의 지지를 등에 업고 국가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임. 뚜렷한 재정 수입 및 외화 획득이 제한되어 있는 가운데 무리한 재정 팽창 정책을 부양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
- 다수의 기업들이 경기침체를 극복하지 못하고 폐업하거나 사업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있어 시장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을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고 있음
  - 정부의 외환통제로 베네수엘라에서 외화조달이 어려운 대다수의 기업은 제3국 계좌를 활용하거나 제품 수입 및 외화 결제를 담당하는 에이전트를 통해 제품을 수입하며 꾸준히 기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음
- UN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경제위기로 지금까지 약 230만 명의 인구가 콜롬비아, 페루, 브라질 등 해외로 이주. 2019년에도 인구 유출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장기적으로 노동력 부족, 국가 생산감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음

### □ 인플레이션 가속화

- 국제통화기금(IMF)이 베네수엘라의 2018년 말 기준 인플레이션을 250만%(2018년 10IMF WEO)로 예측하고 있는 가운데, 화폐개혁 이후 인플레이션 가속화
  - 화폐 액면가 절하로 인해 저렴하게 책정되었던 각종 공공요금 인상, 부가세 4%p 인상, 최저임금 30배 인상 등 각종 요인이 한꺼번에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 베네수엘라 정부는 공식 물가상승률을 발표하지 않음. 존스홉킨스대학의 스티브 행크 교수는 2018년 10월 13일 기준 베네수엘라 인플레이션을 61,025%로 계산함

### □ 기본 생활물자 부족 장기화

- 베네수엘라는 석유 수출대금으로 국내에서 필요한 각종 물품을 수입하는 경제구조를 가졌으나 정부의 외환통제정책으로 물자 수입을 위한 외화가 부족해지며 기본 생필품 부족 현상이 생겨남

- 이는 생필품뿐 아니라 각종 의약품, 산업 원부자재에도 해당되며 사회 전체가 만성적 물자 부족에 시달리고 있음
- 정부는 치솟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주요 품목의 가격통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는 오히려 상점 주인들이 제품 판매를 유보해 물자부족이 심화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됨

## □ 상류층을 중심으로 한 고급 소비재 수요 상존

-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빈부격차가 큰 베네수엘라에서 상류층의 구매력은 크게 감소하지 않았으며 전문가들은 상위 6%에 해당하는 인구가 90%의 소비를 하고 있다고 추정. 이들은 국내 물자부족으로 필요한 제품을 마이애미, 파나마 등에 위치한 베네수엘라 전문 물류업체의 도어 투도어(Door-to-door) 서비스를 통해 외국에서 직접 제품을 들여오며 가격보다는 제품의 품질을 중요시함
- 외국에서 수입하는 고급 소비재들은 달러 가격을 기준으로 현지화 금액을 책정하거나 달러로 매매가 가능함. 전 세계에서 미인대회 수상자가 가장 많은 나라답게 화장품, 성형시술 제품 등에 대한 꾸준한 수요가 있으며 고급식자재, 유아용품 등도 고가의 수입제품을 많이 찾고 있음

## 다. 산업 환경

### □ 석유산업의 총체적 침체로 민간투자 및 석유화학제품 수입 수요 발생

- 미국 경제제재로 인한 신규 파이낸싱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생산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데 수출 역시 큰 영향을 받고 있음
  - 베네수엘라의 주요 원유 수출상대국은 미국, 중국, 인도, 러시아 등이며 아루바, 쿠라사오 등 카리브 국가의 저장창고 혹은 정유소를 거쳐 가는 물량도 있음
  - 주요 탱커 터미널의 설비 유지·보수 미비, Conoco Phillips 관련 쿠라사오 인근 해역 통행에 대한 부담 등으로 원유 수출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음
    - \* 2018년 4월 국제중재재판소는 PDVSA의 Conoco Phillips 베네수엘라 유전 2개 국유화에 대해 20.4억 달러 지불을 명령. 쿠라사오 정부는 Conoco Phillips의 쿠라사오 내 PDVSA 자산 압류를 승인
  - 이에 과거에는 PDVSA가 원유 수출설비 등을 책임졌으나 PDVSA 스스로 설비 개선이 어려운 상황이 되자 합작법인을 설립한 민간기업들이 자본을 투자해 수출물량을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음
- 미국과의 관계 악화로 베네수엘라 원유·응축액에 대한 경제제재 우려가 있으나 미국의 이란 제재로 인해 베네수엘라 제재를 확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 베네수엘라는 일일 162만 배럴을 정유할 수 있는 정유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나 파라과나 컴플렉스만이 설비의 1/3 수준인 일일 30만 배럴을 정유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각종 석유화학제품 생산이 급감하며 베네수엘라 생산 체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과거 국산 석유화학제품을 사용했던 제조업체들은 외국에서 해당 제품을 조달하기 시작해 정유 및 석유화학제품에 강점을 갖는 우리 기업들의 관심이 필요

## □ 국가 재정 악화로 인한 공공 서비스 악화

- 베네수엘라는 풍부한 수자원을 기반으로 높은 전기 보급률을 자랑하는 국가였으나 신규 투자 및 유지·보수 미비, 지나치게 높은 정부 보조금으로 인한 저렴한 전력비용, 과도한 전력 소비 등으로 만성적인 전력 공급 차질을 보이기 시작
  - 2018년 8월에는 수도인 카라카스를 포함한 대부분의 지역이 영향을 받은 대규모 정전이 일어난 바 있으며 지방에서는 정전이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는 주로 송배전망 문제에 기인하는데 특히 변전소에서 잦은 문제가 발생
- 전력 외에 상수도, 쓰레기 처리 등 기본적인 서비스도 영향을 받고 있음
  - 상하수도 정화 처리를 위한 화학물질 부족, 부실 수도관 정비 미비, 수도관 노후 등으로 상수 서비스가 전면 중단되거나 제한급수를 실시하는 지역이 대다수임. 또한 불순물, 침전물이 걸러지지 않아 사용에 부적합한 경우도 많음
  - 이에 개별 가정 혹은 주거단지들은 개별적으로 물탱크를 구비하고 생활용수를 구입하는 경우가 많으며 자체적으로 정수 플랜트를 추가 설치하기도 함

## 라. 정책·규제 환경

### □ 정부의 외환 통제 완화 움직임의 성공적 정착에 주목 필요

- 2018년 8월 정부는 연방관보를 통해 ‘불법환전대응에 대한 법률’을 폐지하고 2018년 9월 외환 환전 자율화를 발표. 또한 2018년 10월에는 국제 거래에 달러화가 아닌 유로와 위안화를 사용하며 20억 유로를 시장에 공급할 예정임을 발표
  - 이러한 일련의 조치를 통해 베네수엘라 경제 활성화의 큰 장애물 중 하나였던 외환 통제를 최대한 완화하고 공식시장과 비공식시장으로 양분된 외환거래를 일원화하여 시장에 안정적으로 외화를 공급하려는 의도를 표출
  - 향후 정부뿐 아니라 모든 민간은행이 외환경매에 참여할 수 있게 될 예정인데, 시중에서 기업 및 민간이 얼마나 자유롭게 외화를 매매할 수 있게 될지가 관건

### □ 산업생산 촉진을 위해 각종 원부자재 8,000개 품목에 대한 관·부가세 면제

- 자국 생산제품의 수출진흥을 위해 한시적으로 현지에서 조달이 어려운 품목의 수입절차 간소화를 도입하고 8,039개 품목에 대해 2019년 12월까지 관·부가세 면제

- 이는 과거 각종 수입을 제한하던 정책기조와는 상반된 모습으로 우리 기업들에게는 오히려 수출장벽이 낮아지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음

## 2. 시장 분석

- 베네수엘라는 오일 달러를 바탕으로 하는 거대 소비시장으로서 잠재력을 보유
- 외화부족, 구매력 감소 등으로 전체적인 교역량이 감소하고 있으나 경제위기 장기화로 국내생산 감소로 인한 각종 수입수요가 발생
- 정치경제 상황 개선 시, 각종 민간투자 및 경기부양책을 기대해볼 수 있음

### 가. 시장 특성 및 전략적 가치

#### □ 오일 달러를 바탕으로 거대 소비시장으로 회복 가능성 보유

- 석유생산에 의존한 높은 소비수준의 사회주의 경제대국으로 중질유를 포함한 확인 석유매장량은 3,003억 배럴로 세계 1위임. 석유생산량은 한때 일일 300만 배럴에 달했으나 경제위기 장기화로 감소 추세
- 1999년 사회주의 혁명 이후, 서민위주 경제정책으로 빈부격차가 줄어들었고, 2003부터 실시한 외환 통제로 각종 수입물자가 정부 보조금이 반영된 공식환율로 수입되면서 국민들의 소비수준은 선진국 수준으로 높아졌으나, 유가 하락으로 인한 경제위기의 시작과 함께 빈곤층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2013년 경제위기 전 베네수엘라의 소비수준은 인근 중남미 국가 평균의 네 배 수준으로 추산되었으며, 중남미의 고급 소비재 쇼룸 역할을 할 정도로 높은 소비수준을 보유했음

#### □ 경제위기 장기화로 일부 원부자재 국내생산 중단으로 수입수요 발생

- 과거 베네수엘라는 원유, 철광석 등 지하자원들을 활용하여 석유화학제품, 철강제품 등을 국내 수요를 충족하는 수준으로 생산해왔음. 하지만 경제위기 장기화로 플라스틱 레진, 제지, 철강제품 등의 생산이 감소되거나 중단되고 있음
- 특히 수출진흥정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제조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원부자재의 생산이 중단되자 이들 기업은 생산라인 유지를 위해 필요한 품목을 적시에 공급받고자 에이전트들을 통해 비싸게 구입하고 있어 해외 제조업체들과 직거래를 희망

## □ 정치경제 상황이 개선될 경우, 각종 민간투자 및 경기부양책 기대

- 중장기적으로 정권이 교체되고 경제정책 방향이 변경될 경우, 오일 달러를 바탕으로 한 거대 시장으로의 회복 전망은 밝은 편임
  - 1999년 사회주의 혁명과 2006년 자원국유화 이후 많은 민간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갔고, 정부관료의 부정부패로 축적된 자본도 해외에 머물고 있어 역외 베네수엘라 민간자금은 4,500억 달러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짐
- 특히 국가 재정상황 악화로 인해 각종 인프라 시설이 노후화되거나 사용이 어려워져 석유 산업 뿐 아니라, 전력에너지, 수자원, 환경, 통신 등 다방면에서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기대되며 과실 송금 제한, 국유화 등의 리스크로 베네수엘라 시장에서 철수한 외국계 기업의 복귀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또한 경제가 회복되면서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회복될 경우, 그동안 미뤄왔던 각종 가계 소비 수요가 폭발하며 소비를 기반으로 한 각종 산업 생산을 자극하여 경기부양 견인책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 나. 수출입

### □ 민간분야 외화 배정 축소, 구매력 감소로 전반적으로 수입 감소

- 베네수엘라 경제는 국내 생산보다는 수입의존도가 높는데 유가하락이 본격화되면서 외화부족으로 자본재, 원자재, 완제품 수입이 감소하기 시작
  - 2017년 8월 미국의 경제제재로 외화부족이 심화되는 한편, 인플레이션 및 경제위기로 인한 일반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약화되며 수입 감소세 심화
  - 외화부족이 시작되며 식료품, 의약품 등 생필품에 대한 보호환율 적용, 외환우선배정 등의 정책을 실시했으나 전체적인 수입 감소로 국내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만큼의 수입은 이루어지지 못함
- 국가별로는 미국과 중국에서의 수입이 57%를 차지하고 있으며 브라질,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인근국에서의 수입도 20%가량을 차지
  -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일로에 있으나 베네수엘라 국내에서 정유활동이 원활하지 못한 관계로 미국에서 정제유를 수입해야 하는 상황
  - 중국에서는 각종 기계류 및 부품, 타이어, 철강제품 등을 수입하는데 중국은 베네수엘라가 자국 제품을 수입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을 조성하고, 중국 수출기업을 통해 제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어 정부 조달 품목은 중국산인 경우가 많음
  -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브라질에서는 식료품, 펄프, 화학제품 등을 수입하며 우방국인 쿠바에서는 의약품을 주로 수입

[ 2015~2017년 베네수엘라 국가별 수입동향 ]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대상국	수입액			점유율			2017/2016 증감률
		2015	2016	2017	2015	2016	2017	
-	합계	30,357	24,011	6,721	100.00	100.00	100.00	- 72.01
1	미국	8,043	6,298	2,403	26.49	26.23	35.75	- 61.85
2	중국	5,336	2,578	1,482	17.58	10.74	22.04	- 42.52
3	브라질	2,415	4,401	397	7.96	18.33	5.91	- 90.97
4	콜롬비아	2,173	2,402	364	7.16	10.00	5.42	- 84.85
5	아르헨티나	883	878	188	2.91	3.66	2.80	- 78.60
6	이탈리아	799	596	173	2.63	2.48	2.58	- 70.92
7	독일	841	442	166	2.77	1.84	2.47	- 62.44
8	멕시코	1,336	1,039	163	4.40	4.33	2.43	- 84.30
9	스페인	656	277	118	2.16	1.15	1.76	- 57.21
10	쿠바	265	158	116	0.87	0.66	1.73	- 26.67
11	파나마	650	752	110	2.14	3.13	1.64	- 85.31
12	대한민국	280	179	63	0.92	0.74	0.94	- 64.57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 2017년 베네수엘라 품목별 수입동향 ]

(단위: 백만 달러, %)

HS코드	품목	수입액	수입점유율	2017/2016 증감률
-	총계	6,721.08	100.00	-72.01
2909	에테르·에테르알코올·과산화알코올·과산화에테르 등	376.70	5.6	-53.89
8471	자동차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371.49	5.53	113.52
3004	의약품	313.38	4.66	-61.7
2710	석유, 역청유	239.35	3.56	-80.49
8413	액체펌프와 액체엘리베이터	180.50	2.69	-48.62
7304	철강관과 중공 프로파일	166.06	2.47	-26.12
8481	파이프·보일러 동체·탱크·통이나 유사 물품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유사 장치	143.10	2.13	-44.78
2707	콜타르를 고온 증류하여 얻은 오일과 이와 유사한 물품	118.74	1.77	-70.84
8421	원심분리기	109.50	1.63	-19.29
8904	예인선과 푸셔크라프트	99.12	1.47	179.25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 비원유 분야 수출 증대 노력

- 베네수엘라는 전통적으로 원유 및 휘발유 수출을 통해 국가 재정을 충당했으나 원유생산 급감, 미국의 경제제재 등으로 비원유 분야 수출을 통한 외화획득을 도모
  - 미국과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對미 수출이 전체 수출의 2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 남부에 위치한 PDVSA의 자회사 CITGO 정유공장으로 수출하는 원유, 알루미늄, 희토류 등 지하 자원 위주임
  - 지하자원을 제외하고 각종 식품, 화훼류, 가구 등의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 중이나 갑각류를 제외 하고는 아직까지 수출이 활발하지 않음

[ 2015~2017년 베네수엘라 국가별 수출동향 ]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대상국	수출액			점유율			2017/2016 증감률
		2015	2016	2017	2015	2016	2017	
-	합계	2,808	1,331	1,278	100.00	100.00	100.00	- 3.96
1	미국	549	302	255	19.57	22.72	19.99	- 15.50
2	콜롬비아	265	102	123	9.45	7.68	9.62	20.32
3	아루바	526	121	116	18.75	9.09	9.11	- 3.77
4	브라질	264	121	109	9.41	9.08	8.54	- 9.72
5	이탈리아	50	35	84	1.80	2.63	6.55	138.71
6	중국	75	48	64	2.66	3.61	5.00	33.03
7	트리니다드토바고	78	43	62	2.78	3.22	4.85	44.82
8	쿠라사오	164	39	59	5.84	2.94	4.60	50.10
9	네덜란드	160	88	57	5.71	6.59	4.47	- 34.92
10	스페인	29	17	36	1.02	1.24	2.85	120.16
18	대한민국	4.4	1.2	12.6	0.16	0.99	0.99	993.07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 2017년 베네수엘라 품목별 수출동향 ]

(단위: 백만 달러, %)

HS코드	품목	수입액	수입점유율	2017/2016 증감률
-	총계	1,278	100	-3.96
2905	비환식알코올과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233	18.27	-1.21
7203	철광석을 직접 환원하여 제조한 철제품과 그 밖의 해면질의 철제품	206	16.14	20.46
2707	콜타르를 고온 증류하여 얻은 오일과 이와 유사한 물품	159	12.41	-40.58
2601	철광과 그 정광	104	8.16	56.3
8901	순항선·유람선·페리보트·화물선·부선과 이와 유사한 선박	89	6.93	160.49
3102	질소비료	70	5.44	-23.28
7601	알루미늄의 괴	69	5.37	45.84
0306	갑각류	54	4.24	7.39
2716	전기에너지	49	3.83	-7.79
2814	무기염기, 금속 산화물·수산화물·과산화물	38	2.96	-38.59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 수출규제장벽은 낮아지고 있으나 대금결제 유의 필요

- 정부의 일련의 정책 발표로 수입대금 외환배정에 필요했던 국내생산 불충분 확인서 발급 등의 각종 절차가 간소화되었고, 정부의 외화(유로) 공급, 불법환전 대응에 대한 법률 폐지 등 외환통제 완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음
- 하지만 아직까지는 100% 자유로운 외환 거래가 시작되지 않고 있고, 베네수엘라 내 외화공급량이 어느 수준인지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에 항상 수출 거래 시에는 대금결제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

- 과거에는 정부에서 외화를 배정받은 이후에도 실제로 지급받기까지 시간차가 존재해 결제가 지연되거나 불가한 경우가 있었음
- 최근에는 대부분의 바이어들이 해외에 보유한 외화를 사용해 결제하거나 에이전트를 통해 결제하고 있으나 항상 선금결제 조건으로 거래해야 하며 대부분의 바이어들도 이러한 거래조건을 이해해 주는 편

## 다. 투자진출

### □ 정부의 외국인 투자유치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국자본 유출

- 베네수엘라 정부는 외국인 투자법을 재정비하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지만 다수의 다국적기업들은 경제위기, 인권문제 등으로 현지 운영을 축소하거나 투자를 철회하는 움직임을 보임
  - UNCTAD에 의하면 2017년 베네수엘라에서는 6,800만 달러의 자본이 유출된 것으로 발표됨
  - 제네럴 모터스, 피렐리, 김벌리 클락, 켈로그 등 다수의 다국적기업들이 철수했으며 현재는 약 150여개의 다국적기업이 경제상황이 호전되기를 희망하며 운영규모를 축소하고 생산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사태를 관망 중임
  - \* 베네수엘라 정부는 공식적인 해외투자 통계를 발표하지 않음
- 투자 환경 측면에서 인프라 및 생산비용은 저렴한 편이나 현지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조달이 힘들고, 수입원자재에 대해서는 정부의 외환통제를 받게 되며 경제악화로 고급인력이 해외로 유출, 고급인력 수급이 어려운 점 등이 투자진출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
  - 세계은행의 2018 Doing Business 보고서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비즈니스 환경은 조사대상 국가 190개 중 188위로 전년 대비 한 단계 하락, 세계 최하위 수준을 기록
- 베네수엘라는 전통적으로 미국 기업의 투자가 우세했으나 차베스, 마두로 정권을 지나며 중국 및 러시아의 자원 중심 투자가 확대되고 있음. 특히 이들 국가는 oil-for-loan 중심의 투자 특징을 지니고 있음

[ 베네수엘라 투자 통계 ]

(단위: 백만 달러)

구분	외국인직접투자	해외직접투자
2012	5,973	4,294
2013	2,680	752
2014	- 1,028	2,373
2015	769	399
2016	1,068	1,041
2017	- 68	2,234

자료원: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18

## □ 석유 중심의 투자유치로 지하자원개발 분야 투자 미비

- 베네수엘라는 석유, 천연가스와 부산물인 펫코크, 유황 이외에도 철, 알루미늄, 석탄, 금, 다이아몬드, 탄탈륨, 희토류 등 지하자원의 보고로 평가되지만 석유에 대한 투자 집중으로 아직까지 미개발 분야가 많음
- 하지만 자원국유화 정책에 따라 자원개발기업에 대한 지분참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자원개발에 대한 투자는 미래에 자원으로 상환한다는 원칙에 따라 자원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기업을 찾아보기 어려움

## 라. 공공조달·프로젝트

### □ 정부 재정 악화로 각종 조달 및 프로젝트 추진 난항

- 베네수엘라 정부 재정 악화로 각종 프로젝트 추진이 중단된 상황임. 각종 인프라 노후화로 프로젝트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나 자체 파이낸싱이 어렵고 PDVSA 관련 추가 파이낸싱은 미국의 제재 대상임. 또한 베네수엘라 각종 인프라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담당했던 미주개발은행(IDB), 중남미개발은행(CAF)도 베네수엘라 관련 차관을 중단하거나 감소하는 추세
-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각종 정부 조달은 중국이 조성한 기금을 활용하여 중국 제품 혹은 중국계 기업을 통해 구매하는 추세라고 하며 이는 베네수엘라 재정 상태가 개선되지 않는 한 계속될 것으로 보임

### □ 경제회복 시 다수 프로젝트 추진 가능

- 향후 경제회복 시 정부 재정 문제로 신규 투자 및 유지·보수가 중단되었던 전력, 교통, 통신, 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전방위적으로 프로젝트 수요가 일시에 폭발할 수 있음. 특히 인프라 분야는 각종 산업 발전의 기반이 되는 만큼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 우리나라는 현대건설이 중국 Wison과의 컨소시엄을 통해 PDVSA의 Puerto La Cruz 정유소 현대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등 베네수엘라에서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다른 중남미 국가에서 성공적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만큼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임
- 향후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우리 국책금융기관이 일부 참여할 경우 이자율을 낮출 수 있으므로 향후 정치, 경제적 변화에 대비, 정부 차원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

### 3. 한국과의 경제교류 및 주요 경험의제

#### 가. 교역

##### □ 對베네수엘라 교역규모 감소 속 수출품목군 다변화 기회 존재

- 우리나라의 수출은 자동차 완제품 수출이 가능했던 2007년 9.4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경제위기가 시작된 2014년 이후 더욱 큰 폭으로 감소
  - 우리 기업들은 주로 자동차부품, 통신기기 등을 수출했으나 경제위기가 시작되면서 외화 부족 및 구매력 약화로 해당 품목의 수출이 크게 감소
  - 2014년 말 해저 케이블 매립 프로젝트 종료 후 전선의 수출이 감소하였으나 2015년 이후 정유 플랜트 공사 본격화로 관련 기자재 수출이 증가하는 등 프로젝트 수행 관련 일회성 수출의 비중이 큰 편임
- 베네수엘라의 경제위기가 심화되면서 점차 국내 생산이 중단되는 품목들이 많아지고 있음. 이 중에는 우리 기업들이 강점을 갖는 플라스틱 레진, 제지, 철강제품, 윤활유 등이 포함되어 있어 단기적으로 수출규모 확대 및 수출품목군 다변화가 가능할 수 있음
- 對베네수엘라 수입의 경우 해산물, 각종 메탈 스크랩이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음

[ 한국의 對베네수엘라 품목별 수출실적(MTI 코드 기준) ]

(단위: 천 달러, %)

구분	코드	품목명	2017년		2018년(9월)	
			수출금액	수출증감률	수출금액	수출증감률
		<b>총계</b>	<b>51,118</b>	<b>-84.2</b>	<b>13,891</b>	<b>-68.9</b>
1	7463	선박용 엔진 및 그 부품	142	845.9	1,452	926.1
2	2900	기타화학공업제품	9	-72.8	1,356	15,766.4
3	5116	위생용품	364	-19.8	1,032	361.5
4	2190	기타석유화학제품	1,058	9.5	853	-6.6
5	6111	철강 및 비합금강형강	15	-82.1	770	5,122.6
6	7131	공기조절기	1,008	-35.9	756	-10.5
7	8414	배전 및 제어기	1,467	106.2	602	-58.9
8	8124	TV 카메라 및 수상기	7	-87.5	585	0.0
9	7512	밸브	1,010	-74.0	571	-35.6
10	2140	합성수지	1,284	-15.2	478	-57.4
11	7451	엘리베이터	980	428.4	347	-61.1
12	7420	자동차부품	989	-92.5	338	-65.6
13	7111	원동기	204	-44.2	319	123.0
14	7251	건설중장비	697	-53.5	317	-47.7
15	6171	주단강	728	-47.5	298	-57.3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 한국의 對베네수엘라 품목별 수입실적(MTI 코드 기준) ]

(단위: 천 달러, %)

구분	코드	품목명	2017년		2018년(9월)	
			수입금액	수입증감률	수입금액	수입증감률
		총계	16,946	-46.6	20,321	67.0
1	0413	갈치	2,678	50.5	6,968	416.2
2	2282	암모니아수	0	0.0	5,496	0.0
3	2190	기타석유화학제품	2,786	1,688,522	4,466	6,181.8
4	6211	알루미늄괴 및 스크랩	3,506	-77.9	2,397	-24.3
5	0432	문어	432	0.0	334	29.6
6	1190	기타금속광물	0	-100.0	303	2,022,900
7	9210	그림	0	0.0	164	35,462.6
8	8135	컴퓨터 주변기기	0	0.0	44	0.0
9	6184	고철	0	-100.0	38	0.0
10	0157	주류	18	49.8	20	32.9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 한국기업 수출 성공사례

- 한국의 대기업 제품을 중심으로 자동차, 가전제품이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음. 경제위기 이후에는 소비자들의 구매력 약화로 판매량이 감소했으나 LG전자 관계자에 따르면 현지 거래선이 2018년 7월 베네수엘라 중부도시인 발렌시아에 쇼룸을 개장하고 성황리에 제품을 판매 중임 (LG전자 직영매장은 없음)
  -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상류층의 가전 수요로 현지 물가에 비해서는 상당히 고가이나 인기리에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고 함
- 베네수엘라에서 한국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베네수엘라가 주변 중남미 국가와 유사할 것이라는 선입견을 지우고 현지 정부가 21세기 사회주의 국가를 지향한다는 점과 석유생산을 토대로 형성된 현지 시장 특성(물가상승률, 노동자 보호정책 등)을 이해하고 이를 수용하는 것이 중요
- 베네수엘라 정부는 현지생산 확대, 일자리 창출 등을 산업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만큼, 제품 수출뿐 아니라 장기적인 투자진출을 고려할 경우, 현지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나. 투자

□ 우리 기업의 투자는 미미한 수준

- 수출입은행 통계에 의하면 2018년 6월 기준 한국의 對베네수엘라 투자(누계치)는 신고건수 30건, 신고금액 1억 100만 달러, 투자금액 6,740만 달러임
  - 베네수엘라에는 삼성전자, LG전자 등 가전제품 서비스법인과 프로젝트 수주와 관련해서 현대건설, 대아이앤씨가 진출해 있음

- 우리 기업들은 베네수엘라 정유 분야 프로젝트에 강점을 가질 수 있으나, 정부 발주 프로젝트 감소, 파이낸싱의 어려움, 관료주의적 비즈니스 관행 등이 프로젝트 참여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
- 2014년 현대건설은 중국기업과 컨소시엄을 통해 PDVSA의 푸에르토 라크루스(Puerto La Cruz) 정유소 현대화 프로젝트를 수주하여 참여하고 있으며, 이는 가장 대표적인 프로젝트 수주사례로 꼽히고 있음

## 다. 주요 경제협력 의제

### □ 중장기적으로 한-베 경제협력을 위한 국가 차원의 협정 체결 필요

- 베네수엘라는 오일 달러를 바탕으로 정부 주도의 프로젝트, 경제협력 이니셔티브가 많은 편이나 대부분 국가 간의 경제협력 협정을 기반으로 함
- 특히 중국, 러시아, 터키 등 최근 베네수엘라에서 활발한 활동을 보이는 국가들은 국가 정상 간 합의가 선행된 경우가 많음
- 베네수엘라는 남미공동시장(Mercosur) 소속 국가이지만 정치적 갈등으로 회원자격이 정지된 상태임. 다만, 각종 공동관세 적용 등 경제적인 혜택은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어 현재 추진 중인 한-Mercosur FTA 체결이 성사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현재는 각종 정치경제 이슈로 한-베네수엘라 관계가 다분히 중립적이나 추후 상황이 개선될 경우, 자원 및 석유 분야 투자진출, 중남미를 겨냥한 제조기지 건설을 위한 제조업 진출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이 가능할 것임

# III 진출전략

- 경제위기로 인해 교역량이 감소세이지만 한국제품의 품질에 대한 높은 선호도를 적극적으로 활용
- 단기적으로는 국내 생산감소 품목에 대한 수입수요, 자금력 있는 바이어의 구매수요에 적극 대응하며 경제회복기에 대응해야 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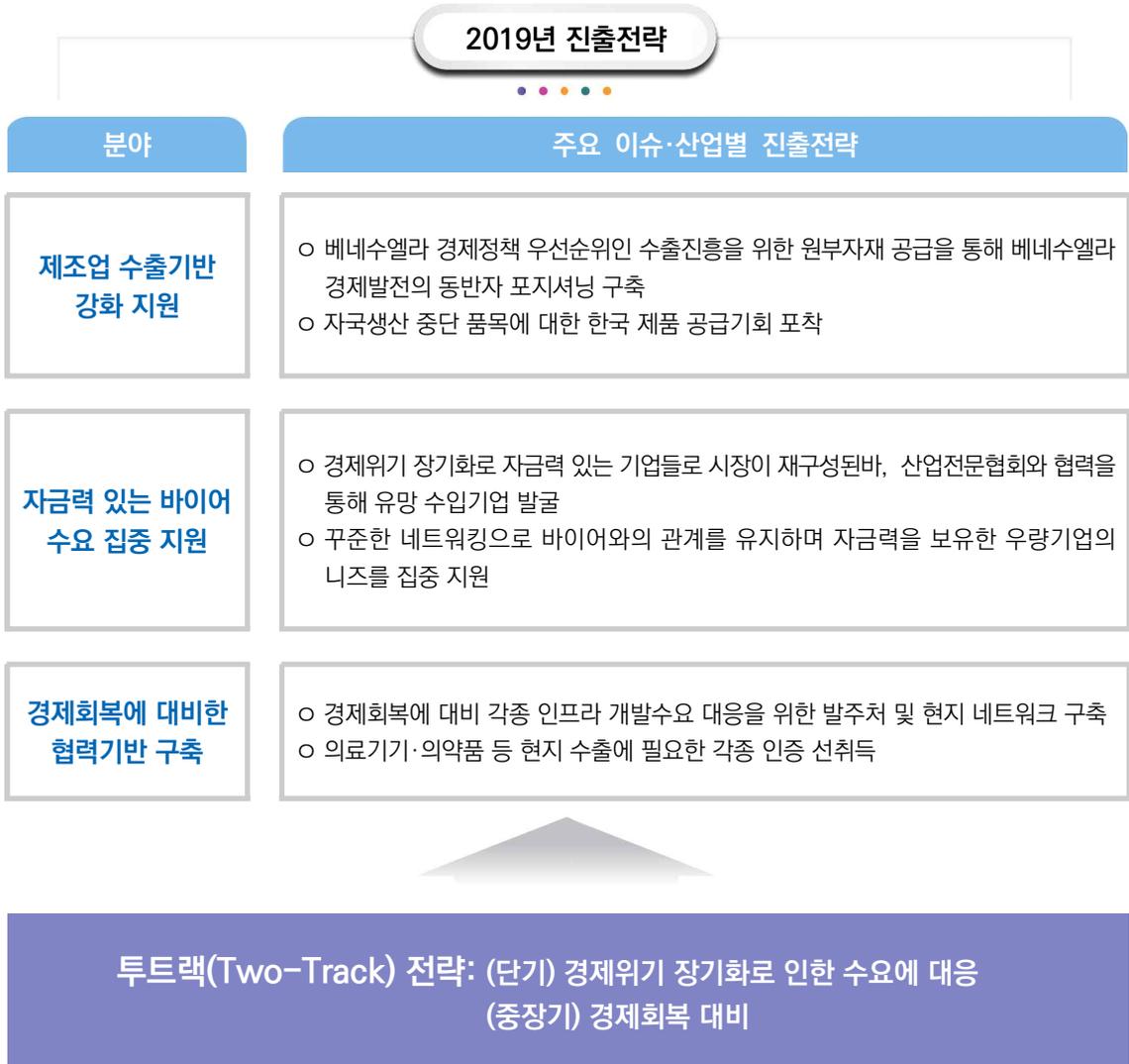
## 1. SWOT 분석 및 전략도출

[ 베네수엘라 SWOT 분석 ]  
[ 지역 SWOT 분석 ]

<p><b>강 점(Strength)</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막대한 원유매장량과 유가상승 기초</li> <li>• 해외 민간자본 등 경제회복 기반 보유</li> </ul>	<p><b>약 점(Weakness)</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치경제 위기 장기화로 국가 이미지 악화</li> <li>• 예측 불가능한 정부의 경제정책 변경</li> <li>• 외화부족으로 인한 대외결제 애로</li> </ul>
<p><b>기 회(Opportunity)</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위기 장기화로 인프라 개발수요 다대</li> <li>• 자국 생산기반 약화로 수입수요 급증</li> <li>• 기존 경쟁기업들의 시장 이탈</li> <li>• 정부의 외환통제 완화정책 도입 시도</li> </ul>	<p><b>위 험(Threa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정책의 낮은 안정성</li> <li>•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구매력 약화</li> <li>• 미국 경제제재 위험 상존</li> <li>• 한-베 국가 차원의 경제 협력기반 부재</li> </ul>

전략방향	세부전략	진출전략
SO 전략 (역량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별 전문협회 네트워크를 통해 현지 생산중단으로 인한 수입 수요기업 발굴</li> <li>• 한국제품 인지도를 활용한 마케팅 확대</li> </ul>	베네수엘라 제조업 가치사슬 보완
ST 전략 (강점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정책 우선순위에 따른 협력분야 발굴</li> <li>• 구매력을 보유한 상류층 수요 공략</li> </ul>	자금력이 충분한 제품군에 진출
WO 전략 (기회 포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프라 갭 분석을 통해 경제회복 후 인프라 개발수요 선제대응</li> </ul>	경제회복 후 인프라 개발사업 참여
WT 전략 (위험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꾸준한 네트워크 구축으로 시장회복 대비</li> </ul>	유력 바이어 네트워크 유지

## 2.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 가. 제조업 수출기반 강화 지원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외화획득을 위한 제조업 수출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역설적으로 국내에서 조달이 어려운 원부자재에 대한 수입수요 발생
- 베네수엘라는 주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건비 및 각종 공공요금(전력, 수도 등)이 저렴해 생산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베네수엘라 경제위기로 정부에서 비석유 부문의 수출을 장려하고 있는 가운데 각 주정부, 국경 지역의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제조업 수출 붐이 일고 있음
  - 다만 오랜 기간 정부의 외환통제로 수입대금에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어 현지 생산보다 수입이 경쟁력이 있었던 관계로 국내 생산시설이 낙후되어 있고 제조에서 수출을 위한 각종 원부자재 공급망, 물류시설이 미구축되어 있음
  - 특히 과거에는 베네수엘라 국내에서 조달 가능했으나 생산량이 감소하거나 중단된 품목에 대해서는 생산라인 유지를 위해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임에도 제품을 수입하고 있음

##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2018년 바이어들이 가장 많이 찾는 품목은 플라스틱 수지, 마스터 배치, 통조림 생산을 위한 주석강판, 각종 철강재, 포장 및 인쇄용 제지 제품 등임
  - \* 2007~2017년 기간 중 철강생산은 91% 감소를 기록함(연간 500만 톤 → 44만 톤)
- 국내에서 원부자재를 조달하다가 수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비용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있지만, 에이전트를 통해 수입하던 중 제조업체와 직거래로 전환을 희망하는 경우도 많은 편
  - 베네수엘라 에이전트들의 주요 역할은 대금결제라 할 수 있음. 특히 ‘불법환전 대응에 대한 법률’이 폐지되기 전에는 달러 인보이스 발행이 불가능해 에이전트를 통해 공식 환율과 비공식 환율 격차를 해소하는 한편, 외화획득 및 결제를 일임해 왔음
- 수출기업의 경우, 수출대금의 20%는 의무적으로 중앙은행에 판매해야 하지만 그 외의 자금은 각종 원부자재, 기자재 구입에 사용할 수 있어 외화획득의 제약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음

## 나. 자금력 있는 바이어 수요 집중 지원

###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베네수엘라는 한때 중남미에서도 가장 거대한 소비시장을 보유한 나라였음. 베네수엘라가 경제위기를 버텨낼 수 있도록 현재 기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들의 파트너로 포지셔닝할 필요가 있음

##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베네수엘라 정부의 외환 통제, 경제위기 장기화로 자금력을 보유한 기업들만이 살아남으며 시장 참여기업들이 재편됨

- 베네수엘라 산업연맹(Conindustria)에 따르면 2018년 1월 실시한 회원사 운영현황 조사에서 약 24.77%의 기업만 운영 중인 것으로 밝혀짐
- 자동차(0.8%), 철강 분야(10%)가 가장 심각한 상황이며 식료품, 시멘트, 의약품, 주류 분야는 30% 이상이 운영 중
- 경제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도 기본적으로 국가를 유지하고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정부 및 민간의 소비 수요가 존재하며 이를 만족시키기 위한 기업들의 경영활동도 유지

##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베네수엘라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금결제 가능여부임. 과거 수차례 비즈니스를 추진했다 하더라도 현재의 수입활동과 대금결제 역량 확인이 필요함
  - 이에 지역별 상공회의소, 산업별 전문협회 등을 통해 현재 수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을 검증하여 이들 기업의 니즈를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단기적인 수출성과를 올릴 수 있는 방안임
  - 베네수엘라 정부는 거시경제 통계, 수출입 통계 등을 발표하지 않고 있으므로 각종 협회, 다국적 조사기관 통계 등을 활용한 다각적인 바이어 검증이 필요
- 경제위기 상황에서 비용감소를 위해 중국 제품을 수입했던 기업들도 품질상의 문제로 한국산 제품을 선호하고 있어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 각종 기계류 및 이를 위한 부분품, 석유화학제품, 철강제품, 플라스틱 수지, 윤활유 등은 꾸준히 수입되고 있으며 다수의 바이어들이 거래 중인 품목

## 다. 경제회복에 대비한 협력기반 구축

###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현재 베네수엘라 경제가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는 막대한 석유매장량, 역외도피자본 등을 바탕으로 과거의 경제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
- 경제회복 시, 경제위기 기간 중 진행하지 못한 각종 인프라 개선사업, 신규 투자, 생산설비 증설 수요가 폭발적으로 쏟아져 나오게 될 전망으로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

##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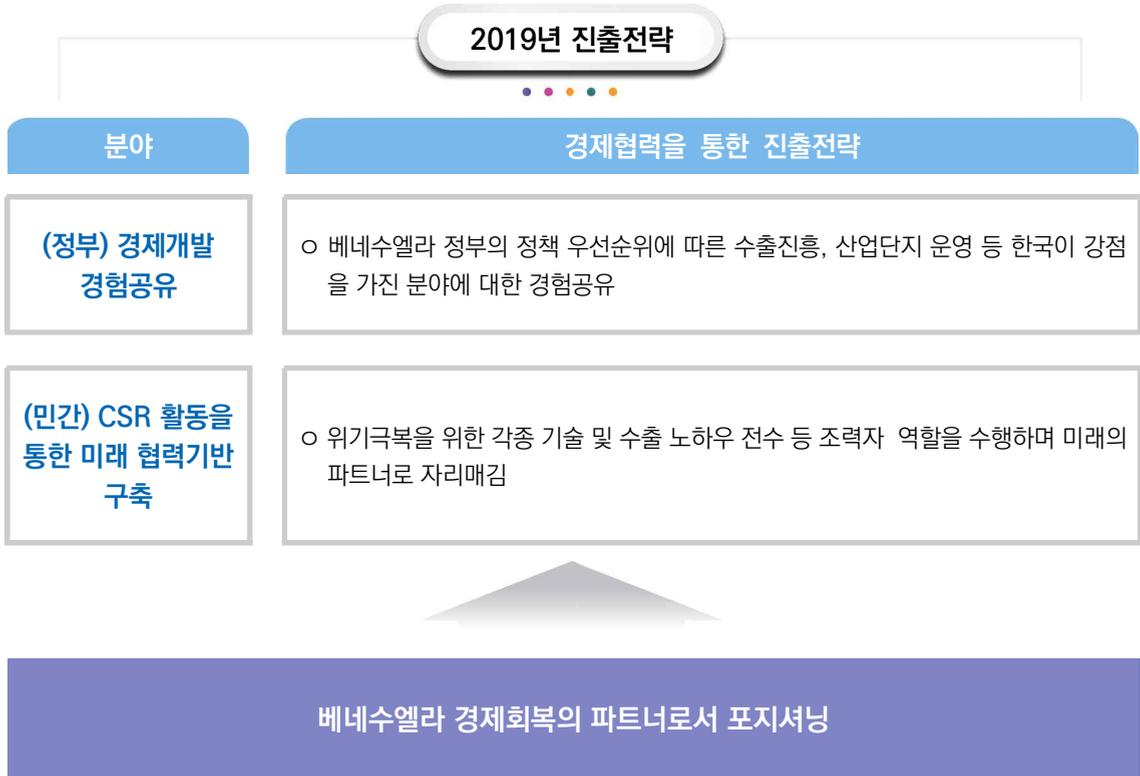
- 베네수엘라는 한때 중남미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로 선진적인 인프라를 구축한 바 있으나 최근의 경제위기로 다국적기업의 철수, 국내기업 운영규모 축소, 인프라 노후화 등 다수의 문제에 봉착

- 하지만 막대한 원유매장량, 풍부한 지하자원 등을 기반으로 정권이 바뀌고 올바른 경제정책이 도입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과거의 경제수준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
  - 시장에서는 장기적인 경제회복에 대해서는 대부분 긍정적이나, 정권 교체시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짧게는 2019년 혹은 향후 10년 이상 예측하기도 함)
  - 정권 교체 시, 미국 경제제재 완화로 국제 금융시장을 통한 각종 파이낸싱이 원활해지는 한편, 역외도파자본(4,500억 달러 추정)이 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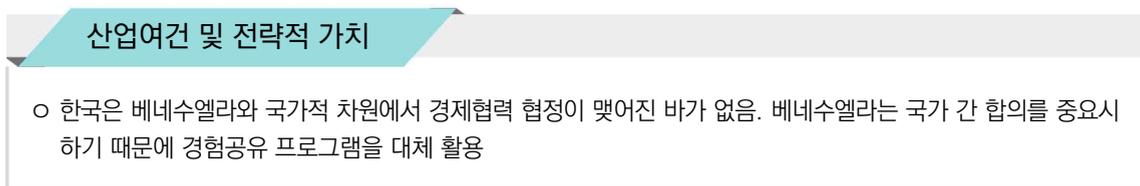
##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경제회복 시, 현재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각종 인프라(송배전망, 도로 포장, 통신망 개선, 수도관 재건, 상수 처리시설 등)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질 것임
  - 이에 대해 각 분야별로 인프라 투자에 대한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현지 파트너와의 네트워크 구축 등 프로젝트 시행 시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이 필요
  - 또한 미주개발은행(IDB), 중남미개발은행(CAF) 등 국제금융기구의 역할도 확대될 수 있으므로 이들을 활용하기 위한 네트워크 구축도 병행
- 재화 및 서비스의 경우, 현지 유력 바이어와 꾸준히 네트워크를 유지하며 의약품 및 의료기기, 화장품 등과 같이 인증 취득에 장기간 소요되는 품목의 경우 시장회복에 대비, 미리 인증을 취득해 두는 편이 바람직할 것임

### 3. 한-베네수엘라 경제협력을 통한 진출전략



#### 가. 국가 차원의 경제개발 경험공유



####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우리나라는 베네수엘라와 국가적 차원에서 경제협력 협정이 맺어진 바가 없으나 베네수엘라는 국가 간 협약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경험공유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을 것
- 현재 베네수엘라의 정치적 상황으로 국가 간 합의가 필요한 거시적인 경제 협정은 추진이 어려울 수 있겠으나 베네수엘라가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기술적 지원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현재 베네수엘라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업생산 증대, 수출확대, 산업단지 운영, 수출을 위한 품질 관리, 국가표준·기술기준의 국제표준 일원화 등의 분야에서 한국의 경험공유가 가능할 것임
  - 또한 국가 운영을 뒷받침하는 재정 관련 통계 시스템 등 베네수엘라 정부가 국제기구에서 기술적 지원을 받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접근 필요
- 또한 지난 20여 년간 21세기 사회주의를 표방하며 자체적인 경제노선을 추구하며 국제 트렌드에서 뒤쳐진 부분들이 있음. 이에 시장 회복 시 발빠르게 경쟁국들을 추격할 수 있도록 콘텐츠, IT 혁신, 바이오 등 신사업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며 미래를 위한 파트너로 자리매김해야 함

## 나. 민간 CSR 활동을 통한 미래 협력기반 구축

### 산업여건 및 전략적 가치

- 베네수엘라의 위기를 일시적인 것으로 보고 위기극복을 위한 각종 기술 및 수출 노하우 전수 등 조력자 역할을 수행하며 미래의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

##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전 세계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위기 장기화로 관심과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소외계층을 위한 CSR 활동 추진 가능

##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제품기증) 베네수엘라에서는 각종 물자부족으로 학교, 일반 주택 등의 관리가 미비하며 의약품, 각종 위생용품 등을 구하지 못하는 인구도 상당수임. 현지 파트너와 공동으로 소외지역 제품기증 등을 통해 베네수엘라 내에서 사회공헌을 하는 동시에 제품을 알릴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
  - 비누, 세제를 비롯한 각종 위생용품, 건물 유지·보수를 위한 페인트 및 기자재, 학생들을 위한 문구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 가능
    - \* 정부의 지원 없이는 생계유지가 어려운 극빈층이 인구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
- (기술학교 및 노하우 전수) 경제위기가 장기화되며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특히나 사회경제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들을 위한 기술학교, 기업

운영 노하우 전수 등을 통해 사회공헌이 가능할 수 있음. 향후 베네수엘라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진출할 경우, 이들 인력을 활용하여 빠른 현지화를 이룰 수 있을 것임

- (기술이전·기술협력) 시장 경제에서 정부가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주정부 혹은 시정부와 협력을 통해 관내 기업들과 기술협력, 기술이전 등을 추진할 경우, 각종 사업에서 정부의 원활한 협조를 받을 수 있을 것임

# 첨부 1

## 수출유망 품목

품목명 1	HS Code	390761	수입관세율(%)	14%(관세) 1%(통관세) 16%(부가가치세)
PET 수지	수입액('17/US\$백만)	3.7	대한수입액('17/US\$백만)	0
	선정사유	현지 생산량 감소로 PET 수지 공급이 부족해져 수지를 찾는 기업이 다수 존재		
	시장동향	현지 생산 감소로 각종 플라스틱 제조기업들이 공급업체를 필요로 함		
	경쟁동향	멕시코 제품이 대량으로 수입되고 있음		
	진출방안	경쟁력 있는 가격의 고품질 제품으로 홍보하면서 시장을 개척해야 함		
품목명 2	HS Code	870830	수입관세율(%)	18%(관세) 1%(통관세) 16%(부가가치세)
브레이크 패드	수입액('17/US\$백만)	3	대한수입액('17/US\$백만)	0
	선정사유	철도 미비, 대중교통 열악, 치안 불안으로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상존하며, 도로포장 상태가 양호하지 않아 자동차 소모품에 대한 수요가 높은 편		
	시장동향	베네수엘라 내 브레이크 패드가 생산되지 않으며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경쟁동향	2014년부터 시작된 경제위기로 최근에는 가격경쟁력이 뛰어난 중국 제품이 시장을 장악하기 시작		
	진출방안	중국 제품을 구매하면서도 품질에 대한 의구심, 불만이 계속 불거지고 있어 시장 상황이 개선될 경우 좋은 이미지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 제품에 대한 수요가 회복될 것으로, 바이어와의 지속적인 접촉이 중요함		
품목명 3	HS Code	330499	수입관세율(%)	18%(관세) 1%(통관세) 16%(부가가치세)
보톡스	수입액('17/US\$백만)	6	대한수입액('17/US\$백만)	0
	선정사유	베네수엘라는 전통적으로 뷰티에 대한 관심이 높은 국가로 기존의 미국, 유럽산 제품의 가격이 높아 한국 제품이 진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시장동향	수십 년 동안 베네수엘라는 성형수술 및 시술을 포함한 각종 뷰티용품 지출이 가장 큰 국가였으며, 현재 경제상황으로 시장이 대폭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외화를 획득할 수 있는 상류층의 성형 수요가 존재		
	경쟁동향	기존의 미국, 유럽산 제품이 진출해 있으나, 높은 가격으로 인해 조금 더 저렴한 가격의 제품이 필요한 상황		
	진출방안	한국의 미용제품은 베네수엘라 시장에서도 높은 품질을 인정받고 있으며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함. 이에 현지 주요 네트워크를 활용한 제품 홍보를 추천		
품목명 4	HS Code	271019	수입관세율(%)	0%(관세) 1%(통관세) 16%(부가가치세)
엔진오일	수입액('17/US\$백만)	224	대한수입액('17/US\$백만)	0
	선정사유	현지 베네수엘라 시장 내 엔진오일 부족으로 인해 좋은 업체의 오일 공급이 필요한 상황임		
	시장동향	2016년 기준 도로교통국(INTT)에 등록된 차량의 숫자가 약 5백만 대임. 석유화학공사(Pequiven)에서 엔진오일을 생산했으나, 생산량 급감으로 2015년 이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임		
	경쟁동향	저렴한 운송비, 짧은 운송기간으로 대부분 미국 제품이 진출해 있음		
	진출방안	한국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시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높음		

품목명 5	HS Code	391990	수입관세율(%)	20%(관세) 1%(통관세) 16%(부가가치세)
선팅필름	수입액('17/US\$백만)	5	대한수입액('17/US\$백만)	0
	선정사유	베네수엘라 교통법은 차량용 선팅필름 사용을 허가하고 있는데 대다수의 차량 운전자들은 안전문제, 기온문제 등으로 선팅필름을 장착함		
	시장동향	카라카스를 비롯한 베네수엘라 전역에서 치안이 상당히 불안해 빈부격차를 막론하고 차량 내부를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짙은 색상의 선팅필름을 사용함		
	경쟁동향	미국에서 제조된 차량용 선팅필름은 색상 지속력 및 접착력 부문에서 높은 명성을 얻고 있음. 중국 제품은 가격이 저렴하나 품질 면에서 굉장히 안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음		
	진출방안	베네수엘라는 최근 몇 년간 경제위기를 겪긴 했지만 전통적으로 석유를 바탕으로 부를 축적한 나라로 가격보다는 품질을 우선하는 소비 성향이 남아 있음. 이에 베네수엘라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품질 관리, 적기 납부를 위한 제품 재고 관리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함		

## 첨부 2

# 수출유망 서비스

건설 플랜트	선정사유	정유 플랜트 분야의 한국기업에 대한 평가가 높아 설계, 감리, EPC 등 관련 분야 진출 유망
	시장동향	국가 외환 부족으로 신규 프로젝트는 시공사 파이낸싱으로 추진
	경쟁동향	미국, 일본, 구미 기업 철수로 참여기회가 유망하며 최근 중국, 러시아, 터키 기업들의 참여가 활발
	진출방안	베네수엘라와 외교적으로 가까운 중국 기업과 제휴를 통한 파이낸싱 도모

주: 기타 산업의 경우 경제상황 악화로 현지 투자가 활발하지 않아 현재로서는 추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음

□ **상공회의소 협력 지방상권 개척사업 확대**

- 카라카스가 가장 중요한 경제 중심지이나 발렌시아, 마라카이 등 지방상권에서도 중요한 경제 활동이 진행 중임
  - 이에 주요 경제도시의 상공회의소와 협업을 강화하여 한국 제품 인콰이어리 접수를 위한 커뮤니티 케이션 채널 구축 및 지방기업들의 수입 수요 대응

□ **베네수엘라 인근 관할국 공동 마케팅 추진**

- 카라카스 무역관의 관할국인 트리니다드 토바고, 수리남, 가이아나 등 신시장 개척이 필요한 지역을 묶어 카리브 지역 전시회를 활용, 한국 홍보관 운영 등 공동 마케팅 실시
  - 2019년 7월 4~7일 : 트리니다드 토바고 무역투자전시회(Trade and Investment convention)
  - 2019년 9월(잠정) : 가이아나 무역투자전시회(GuyTIE)

□ **연중 사이버 상담 및 구매단 방한을 통한 바이어와의 접촉기회 확대**

- 국내기업의 베네수엘라 출장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관계로 사이버 상담을 통해 연중 수시로 바이어와 접촉기회 확대
  - 주요 비즈니스 매칭 건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바이어 방문 대행상담을 개최하여 수출 성약으로 이어지도록 지원
- 국내 수출상담회 및 전시회를 활용, 베네수엘라 바이어의 한국 방한을 통해 비즈니스 개발기회 제공



## 첨부 4

# 2019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전시회 캘린더

### □ 주요 정치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마두로 대통령 2기 취임	2019. 1. 10	-

### □ 주요 경제·통상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OPEC 총회 개최	2019년 하반기	2019년 의장국

### □ 유망 전시회 캘린더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Expo Seguridad(보안전시회)	2019. 10	-
Expo Venezuela Potencia(베네수엘라 종합박람회)	2019. 3	-
Construya Vivienda 2019	2019. 10	-

### 담당자

카라카스 무역관 안성희

Tel +58-212-750-2218

직책 관장

Email sh\_ahn@kotra.or.kr

# 2019 국별 진출전략

## 베네수엘라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